

여학생들의 통일투쟁의 의지가
 배두에 휘날리는,
 7천만 겨레에게는
 통일의 꽃다발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수신:전국의 여학생 일꾼

발신:전여대협 조통사업 준비모임

일시:자주 민주 통일 진군 48년 7월 10일

제목:전여대협 조통사업 1차 제안서

"O! 제안서가 여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학생 각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 자주적이고 주어진 모습으로 출발하여 여학생 대중 속에서 자신있게 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I. 먼저 준비모임에서 얘기한 것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릅니다. 이럴땐 시원한 물속에 빠져서 더위를 식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방중이라고 해서 투쟁마저 휴식기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투쟁을 잘해 보려고 땀으로 목욕을 하고 계시는 여학생 일꾼 여러분께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반가움을 표시합니다.

92년은 어떤 해일까 생각해 봅니다. 벌써 92년도 반이 지나갔지만 92년이 우리 청년 여학생에게 부여하고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대선투쟁, 지자체 연기 철폐 투쟁을 벌이면서 여대협은 우리의 조직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내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은, 진관 사건을 통해 우리 운동에서 자기 내용의 정형을 마련해 들어가는 노력 또한 함차게 전개 하였습니다.

이제 전대협이 전총련으로의 자기 전망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리고 92년 민주정부 수립의 한길에서, 우리 여학운은 철저하게 우리 운동 발전의 강화로 이에 복무해야 하겠지요. 방중의 힘든 일정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벌여냄으로

써 알차고 보람된 일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면의 조국통일 투쟁에서 많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여지껏 조통투쟁을 더욱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여내오지 못했는가? 또한 왜 조통투쟁이 우리 여학운의 자기 사업 내용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결론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나의 문제로 받아안으면서 적극적인 실천투쟁을 벌여내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여학운에서 소극성도 문제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삶을 변화시켜내려는 의지속에서 우리 내용의 투쟁으로 전체 투쟁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실천적 노력이 미비했던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는 우리 여대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투쟁을 일궈내야 한다는 결론으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방중 조통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당면 투쟁에 형식적으로 결합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나 단지 방중, 8.15를 준비하는 투쟁이 아니라, 이러한 일정속에서 이후 계속적인 통일운동의 내용과 투쟁 형태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건) 조통사업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꾸러지게 되었고 이 준비모임에서는 전여대협 조통사업의 책임 집행단위로써 전국의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투쟁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 전여대협 조통사업 준비모임 ***

1. 준비모임의 지위와 역할

①지위: 전여대협 조통사업의 중앙 집행단위입니다.

②역할: 연구 조사사업의 수행 속에서 전반적인 전여대협 조통투쟁의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집행을 책임집니다.

2. 준비모임의 구성

: 전여대협 부의장님을 준비모임의 장으로 하여 현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집행에 따른 역할을 가집니다.

3. 준비모임의 운영방도와 여타의 계획은 차후 사업 속에서 외화될 것이며 7월 9일에 준비모임이 자신의 결의를 모아서 결단식을 했습니다

여학생일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힘찬 투쟁의 전개가 곧 준비모임의 힘이 되고 자량이 될 것입니다.

난달 30일과 7월 7일에 준비모임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이 준비모임에 결합했고 우리는 이제 조통투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투쟁이 나와 동일시 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고 이럴때 통일투쟁은 어떻게 자신을 단련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였습니다.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는 이번 통일 투쟁을 통해서 당위적인 통일투쟁을 마련하

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여학생들의 자주적이고 주어진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여 학생 일꾼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방중의 각각의 단위별 평가 수련회, 계획 등등이 심신을 지치게 하는데 그래도 당면 투쟁은 해야 하고 쏟아지는 문건, 제안서 등이 더욱 더 무게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르게는 뭔가 문건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지 내용이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문운동의 일꾼인 만큼 발빠르게 문건이 손에 들어오지 않기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여학생 일꾼들은 고민은 많이 하는데 투쟁에 펼쳐 일어날 방도가 잘 잡히지 않아 막막하기도 한 것 같아요. 후배를 만나고 과 동료를 만나고 여러 학우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전취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하나씩 변해 가는 게 우리 운동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라 믿고 행동하는 데 솔직히 이 방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할지 몰라요. '방학편 아르바이트나 할래요.' '이제 학교에서 해방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학우들을 만나기가 여학생 일꾼들은 두려워집니다. '통일이 뭐예요? 통일 통일 하는데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통일 투쟁이 여학생에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을 하면 자신있고 구체적인 답을 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때문에 통일 투쟁을 하는가 하고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답변은 앞서 얘기한 것의 정리로써 네가지로 모아 보았습니다.

1) 개인이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서 있는가?로 사상 의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상의 위대함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나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 일꾼으로 성장해온 과정을 보면 다분히 실무적인 능력과 경험으로 사람을 준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시기 투쟁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번 투쟁을 잘 의화시켜 볼까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무의식 중에 몸매 배인 관성을 버리고 신념과 애정을 가지고서 나로부터의 변화로 우리 학우들을 만나 나가면서 더욱 힘있는 통일 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냅시다.

2) 민족해방 투쟁의 길에 우리 여학문이 얼마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상에 입각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여학문의 이념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종 다기한 투쟁에 펼쳐 일어나면서 우리 운동의 내용을 찾아가고 투쟁 속에서 내용을 창출해 가야 겠습니다. 이번의 전여대협의 통일 투쟁은 전체 통일 운동의 대중화와 내용을 풍부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여거집니다.

3) 대중조직(여대협, 여학생 기구)의 발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학생회를 돌아봅시다. 어느만큼의 조직적 발전을 내오고 있습니까? 기층 여학생회가 건설되지 않은 것은 몇년 전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여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학생 일꾼이나 여학생들간에 개인적인 친분은 높으나 진지하게 서로 서로가 삶을 변화시켜 내려는 노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제 통일 투쟁 속에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여 투쟁으로 우리의 조직을 굳건히 세워냅시다. 이때에야 전여대협의 건설도 앞당겨 질 것입니다.

4) 주체의 노력이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앞서 사상 의식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스스로의 변화 속에서 주위의 사람을 변화시켜 내고 이것이 우리 운동의 발전에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번 조통 투쟁을 통해 스스로 주변을 변화시켜 내려는 버릇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네가지 속에 그 문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닐테지요.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는, 승리하는 통일투쟁의 주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II. 통일 투쟁의 의의를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여학운의 내용으로 통일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체 통일 투쟁의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투쟁을 다양하게 펼쳐냄으로써 전체 통일 투쟁의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강화해 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여학운에 있어서, 전여대협에 있어서의 통일 투쟁의 의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1. 92년 조국 통일 운동의 과제

95년 통일 조국 건설 투쟁에 있어서 조국 통일 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젖힐 92년 조국 통일 운동은,

1) 연방제에 대한 전민족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어 국민들 속에 확산시키고 범민련을 강화하며 민족통일 정치 협상회의 소집을 이루어냅니다.

통일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국간의 협의로만 축소시키거나 외세의 간섭을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48년간의 분단의 벽을 깨고 체제가 다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속에서 민족 대단결 정신으로 하나되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을 전민족적인 총의로 모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통일 운동의 대중화는 창구단일화의 논리를 펴고 있는 당국의 기만적 통일 정책을 무력화 시키고 모든 각계의 통일세력이 함께하는 범민련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범민련의 강화는 우리 통일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구실을 세우는 것입니다.

2) 합의서 이행을 전민족적 힘으로 강제하고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이루며 민족적 단결과 협력을 드높여야 합니다.

92년은 반드시 민주주도의 민주대연합을 통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절대적명제의 과제를 가집니다. 지난 48년간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깨고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통일방안이 무엇인가를 알고 민족 대단결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부터 없애고 통일인사를 석방하는 것이 실질적 정치적 긴장을 없애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통일허무주의를 유포시키면서 동시에 통일을 원하는 세력인 것처럼 당국간의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있는 결과가 없고 실질적 이행의 진척이 없는 당국의 통일정책을 전국민적인 통일 열망으로 폭로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한반도 평화와 통일논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는 핵사찰 공방을 빙자한 미국의 무력위협을 중단시키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채택 이후 그 이행을 방해하면서 두개의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 미제의 음모는 핵사찰 공방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내의 전쟁연습 틱스피리트 훈련 일시 중지를 이제는 완전중지로 만들고 반미투쟁을 더욱 더 대중적인 기세로 몰아갈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방제로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주한 미군의 완전철수를 위해 그 대중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 조국 통일 투쟁의 과제를 한마디로 정식화하면,

『주한미군 철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의 소집, 연방제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투쟁을 전개하는 정치적 과제와 범민련 강화, 범청학련 건설의 조직적 과제 실현을 위한 광장으로 내달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여대협의 통일 투쟁이 가지는 의의

이제 92년 조국 통일 투쟁이 가지는 의의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공유하면서 다 부지각 마음먹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선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이 투쟁이 더 많은 여학우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적인 투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매년 통일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는 8월이 돌아오면 여학생회도 우리의 독자적 내용으로 결합해야 하니까 막연하게 제기해 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 여학생회가 걸어왔던 조국통일 운동 역사를 보면 결코 자신있는 승리의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학우들의 처지와 조건만을 내세우며 '아직 여학우들에게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범대회 때 총여 간부만이라도 결합하면 그것이 성과이다' 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늘 고여있는 상태에서 머무러지만 말고 이제는 어떻게 계속 흐르게 할 것인지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합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절박한 우리 민족 운명에 관한 문제를, 여학우들이 나의 삶의 문제로 나의 운명의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는 하지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학우들에게 맞는, 그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해서 여학우들이 먼저 나설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 보면서 92년 전여대협이 벌여낸 조국 통일 투쟁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1) 여학생운동의 활동내용과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적인 경험을 가진 주체를 튼튼히 키울 수 있는 투쟁입니다.

이제까지 여학생운동의 주체마저도 통일운동에 대한 고민의 미비함으로, 나부터 변화하는 투쟁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당위에 의해서 제기되는 투쟁을 받아안음으로 인해 자칫 내용을 채웠다고 보다는 실무적인 사업에 급급해 했고 사업을 치른 후에는 몹시 지쳐했습니다. 올해의 조통 투쟁은 여학우 대중가의 좀 더 폭 넓은 결합 방식을 모색하는 속에서 주체로 단련되는 투쟁이 되어야겠습니다.

2) 여학우들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느끼게 하고, 통일 조국이 빠져다 줄 여성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인식을 주어 여학우들의 의식성장에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쟁입니다.

이는 또한 여학우들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여학생 조직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학우들은 여성들의 요구에서 출발한 투쟁에 보다 더 많은 자주성 발현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통일의 문제가 나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 아닌, 나의 운명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3) 여성단체들과의 투쟁적 연대를 드높임으로써 전체 여성운동에서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투쟁입니다.

지난 상반기 성폭력 사안을 풀어냄에 있어서 여성단체들과의 만남 그 자체 의미의 중요성 외에는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절박한 통일 사안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투쟁적 내용을 가지고, 선봉장으로서의 청년 여학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전여대협의 산하 조동사업 준비모임을 두면서, 자기 조직 강화 발전과 전여대협의 연대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투쟁입니다.

흔히들 쉽게 말합니다. '조직은 투쟁 속에 건설 강화발전 되는 것'이라고. 적극적이고 땀땀한 이번의 조동 투쟁을 통해 각급 단위 여학생회의 발전과 함께 전여대협 건설의 전망을 밝혀 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장에서 우리운동의 발전, 여학운의 발전을 도모해내는 다양한 방도들을 지금부터 우리 여학생 일꾼들의 손으로 꾸려 나갑시다.

Ⅲ. 여학생간부들이 통일운동을 전개할 내용에 대하여 -여학우들과 함께 외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떤 내용의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내용을 만들어낸 간부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학우들에게 통일을 절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 특별히 있을까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또는 어디에서 내용이 주어지지 않을까하고 기대해온 것이 많은 간부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학우들도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요, 식민지 조국에서 고통받는 여성인데 여학우들이 통일의 의지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들이 과연 없겠습니까? 여학우들의 생활로 깊게 접근해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로 하여 여학우들이 식민지 남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사회구조적 인식을 갖게 되는지, 그리고 자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정말로 절박하게 가지게 되는지 그 고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방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학우들의 생활과 여학우들의 의식에 밀접히 접근해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중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바로 대중의 생활 속에서 변혁의 의지를, 그리고 변혁의 주체로 서나가는 과정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여학우들과 함께 자주통일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도라도 해보는 건 강한 여학생간부 또한 우리 주위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시도들이 하나의 통일된 대규모의 실천으로 모아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그마한 고민,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보자!고 집단적인 결의를 높이고 그 중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로 생겨난 좋은 모범들을 집단 전체에 널리 확산시켜내는 상층 단위 간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총여학생회장님들로부터 그런 결의를 모아내야만 여학생 운동에서의 통일운동의 첫출발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과연 우리 여학우들은 어떤 사실을 볼 때 분단의 고통을, 통일의 절박성을 자신의 일로 느끼겠는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여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내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1)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상반기 동안 전국의 여학생일꾼들은 많은 학우들과 보은, 진관 무죄석방과 특별법 제정,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수립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폭력 문제가 너무나 많은 여학우들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자기자신의 고통으로 되고 있으며, 많은 학우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행동전으로 나서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월 투쟁 이후 간부들의 사업전개가 거의 중단된 후에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학우들의 해결 요구는 이제 보은, 진관 항소심 선고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박두함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더욱 확산시켜 학우들 스스로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성폭력 없는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해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학생간부일꾼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투쟁은 성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에는 꼭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투쟁을 끝까지 책임있게 진행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법 제정 그 자체로도 매우 귀중한 성과물이지만 그것만 고지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만연한 성폭력을 없앨 수 없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이제는 성폭력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원적 해결에 투쟁의 내용을 상승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국, 일본의 퇴폐적 성문화가 무제한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사회에 매춘과 퇴폐적 성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는 양키문화가 우리 전통적인 문화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사회의 퇴폐적 성문화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주한미군기지입니다. 기지촌의 퇴폐적 문화가 기지촌 아닌 곳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종속적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경제파탄으로 인해 유흥자본이 유흥 향락업으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정부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민생치안에는 신경을 돌리지 않고 민족민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데만 경찰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작태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학우들의 인식 속에서는 퇴폐적 성문화가 미국,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인식이 막연하나마 존재하고 있고, 기지촌에 한번 다녀온 학우들이면 누구나 기지촌에서부터 퇴폐적 성문화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 속에서 정부가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주한미군이 우리 나라에 꼭 주둔하고 있어야 하니까? 정부는 왜 우리 여성들을 성폭력의 위협 속에 내모는 주한미군주둔을 무조건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분단때문이지 않습니까? 분단을 극복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여학우들의 살라라는 조금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폭력의 피해자로서의 여학우들의 살라라 명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성폭력문제해결의 투쟁 방향은 당연히 미제국주의자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퇴폐적 성문화 유포를 막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미제국주의자의 간섭을 제거하는 것으로, 또한 미제에 아부 굴종하며 여성들의 인권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 매관매재정권을 함락시키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우들의 현재의 인식수준을 기반으로 하여 간부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학우들도 자연스럽게 성폭력추방투쟁의 방향을 미제국주의자들과 독재정권에게 돌릴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이야말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업해나갈 것인가

- ▶ 보은, 진관 항소심 공판 참가 등 '보은, 진관 석방과 성폭법 제정'이라는 학우들의 자연스럽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 ▶ 기지촌 방문과 기지촌학동(서울, 수원)을 중심으로 한 방도로 하여 학우들에게 퇴폐적 성문화의 근원으로서의 주한미군을 알려내고 주한미군이 다름 아닌 조국의 분단을 빚어낸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낸다.

2)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고통, 정신대, 이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신대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고통, 정신대. 그러나 대일 종속적인 정부의 굴욕외교로 인해 여성들의 고통은 이제껏 치유되지 못해왔습니다. 지난 1월 미야자와 방한때에도 정신대문제 완전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으나, 정부는 미국과 미리 합의된 대로 동북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묵인하는 댓가로 일본이 북에 대해 핵사찰압력을 행사해줄 것과 무역역조를 시정해줄 것을 구걸하고 정신대문제 등 민족의 고통을 그냥 묻어두려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고위급회담에서, 또한 그 이후로 몇번씩 이북에서는 정신대문제 공동해결을 제의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정신대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계속하여 정신대문제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학생이 나서서 정신대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신대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상처입니다. 피해여성들이 살아있고, 외세에 의해 그 삶을 짓밟히고 있는 현대판 정신대가 기생관광에서, 기지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대피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완전한 피해배상을 받아내고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정신대를 없애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대문제해결은 알의 성폭력문제해결과 같이 여학우등 자신의 생활속으로부터 생겨나오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신대문제해결은 피해자본인이건 아니건, 남성이건 여성이건간에 모두가 할 마음이 되어 해나가야 할 하는 전면폭적인 과제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민족이 자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고, 다시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민족구성원 모두가 민족이 자주권을 잃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를 다시금 인식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학생의 자각, 남북의 연대는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중심고리입니다.

현재까지 정신대문제해결투쟁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보고 정신대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지금까지의 성과를 찾아봅시다.

① 광범한 국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 여성들의 고통이 어떠한가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② 실제 피해자인 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그간의 오욕의 세월을 딛고 문

제해결의 주체로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 ③정신대문제를 해결해나갈 민간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고, 역시, 정신대 피해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 여성들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④공동해결에 대한 북한의 제의등에 접하면서 남북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로 서나가면서 연대의식을 높여나가야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①언론의 힘에 의해 사회여론으로 확산되기는 했지만 대중의식화, 조직화의 공간이 넓어지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대중적 행동전이 벌어지고 있지 못하며 소수의 시위투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시위가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20-30명에 머무르고 있음)
- ②아시아 여러국가 여성들과의 연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당연히 문제해결의 공동주체가 되어야하는 이북과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 ③현재 미국의 묵인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 이를 틈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남한 정부의 FK0법안제정기도 동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고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발전되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정신대문제해결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①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대중조직들이 정신대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 대중적 의식화, 조직화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 ②남북이 함께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연대하며 사상,제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연방제통일조국의 상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 ③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을 높여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 ④현대판 정신대인 기생관광, 기지촌을 없애나가고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학생일꾼들이 정신대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체로 서야하는 것, 그리고 남북이 연대하는 것은 정신대문제자체로 보아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정신대문제남북공동해결은 여학우들의 민족자주의식,통일의식을 높이 발전시킵니

다.

- ①민족이 제국주의적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여성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민족자주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 ② 남북이 달랐다면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연방제통일조국의 새모습을 그려게 됩니다.
- ③ 정신대배상당사자인 일본의 국군주의적 작태와 미국과 남한 정부의 긴장고조움모에 대해 인식하고 평화군축투쟁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게 됩니다.
- ④ 현대판 정신대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 식민지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업해나갈 것인가

- ▶ 학우들의 본심 해격의지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신대학머니들의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화방안을 마련합니다. (각 지역에 살고 계신 정신대 할머니를 돕는 후원회 등)
- ▶ 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투쟁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자매결연 맺, 은 이북 학교의 여학우들에게 정신대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나가는 서한 띄우기, 정신대 할머니 돕기 장터 등)

* 조국 통일 투쟁에 여학우가 함께하는

여학우 조직화의 한가지 형태-한라 선봉대(전여대협 선봉대)

청년 학생들의 통일 투쟁은 언제나 7천만 겨레를 생각하고 4천만 민중속에서 가슴 절절한 통일의 염원을 불러일으키는데 굴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여학생들의 눈물어린 통일에 대한 열정이 녹아있습니다. 88년 제1기 통일 선봉대로부터 올 제4기 통일선봉대의 조직까지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온갖 무용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통일선봉대 참가 또한 드겁기만 했습니다.

89년 민족통일 여학생단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각지에서 조직된 여학생들의 대열은 엄청난 통일투쟁의 힘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여학생들이 모여 통일 투쟁을 전개하고 여성해방의 기치로 통일 투쟁을 벌여나간 것은 우리 여학우의 역사에 크게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전여대협 건준위는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통일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서, 통일 선봉대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내용을 가지고서 끝까지 책임지는 투쟁을 전개해 왔던가, 전체

통일선봉대와 얼마나 어우러져 투쟁을 전개했는가 하고 많은 반성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통일 투쟁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하나가 되어 전개해 들어갈때만이 유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 민족 통일 여학생단의 활동이 얼마나 한계가 있었는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1) 민족통일 여학생단의 조직화된 대오를 끝까지 책임지고 통일의 주체로 남기려는 방도를 마련하였는가입니다.

실지 민족 통일 여학생단의 조직은 통일 운동에 우리도 선봉대를 조직화해보자는 욕심과 함께 당면 제기된 평양 축전의 제7센타(여성 센타)교류의 차원으로 제기되어 이후 지속적인 통일운동에서 여학생 대오의 통일투쟁의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없이 진행되어 여학우들이 자신의 내용으로 통일의 열망을 고취해 나가는데 대한 의식화 조직화의 방안이 미약했습니다.

2) 전체 통일선봉대의 투쟁과 얼마나 어우러져 우리 통일 운동의 발전에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통일 선봉대의 투쟁은 언제나 하나의 대오로서 한 목소리로 국민과 함께 했을 때 더욱 돋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 선봉대는 그 자체가 대중, 정치, 군사 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철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럴때 민통여단은 그 자체가 갖는 성과와 통일의 의지는 높이 평가되나 통일운동에서 단일한 대오로 엮여 일사불란한 통일 투쟁으로 펼쳐 내는 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집니다. 다양한 부문 조직 그리고 여타 단체들도 충 망라되어 큰 강물을 형성할 때 우리 통일의 열망도 더욱 커지고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올해의 통선대는 '범민련 통선대'로의 명칭을 달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92년 통일선봉대에는 우리 여학우들이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서 '범민련 통선대'의 일원으로, 더욱 힘있는 '범민련 통선대'구성에 부문조직인 여대협이 참가하여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전여대협 선봉대의 지위와 역할

1. 지위: '범민련 통일선봉대'로서 특수하게 부문조직인 여대협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부문투쟁의 내용과 결부해 통선대 활동을 수행하는 '전여대협 선봉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한라선봉대'의 역할을 우리가 받아안으면서 '전대협 한라선봉대'의 지위를 가지는 특수 선봉대입니다.
2. 역할: 지위에서 주어지는 통선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이하게 한라산 등반을 하여 한라산을 물과 돌을 채집하고, 여대협 의 투쟁내용을 전국 각지에서 선전해내어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기해냅니다.

통선대의 명칭

전체 통선대의 전일적인 체계를 따라 '한라 선봉대'로 명칭되며 이에 전여대협 선봉대의 지위도 명확히 합니다.

통선대의 구성에 대하여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40인으로 제한하며 여학생 일꾼으로의 단련을 위해 과, 단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국적 열정이 넘치는 여학생으로 구성합니다.

한라선봉대의 대장을 두며, 국토순례시에는 2팀으로 나뉘어 전체 선봉대의 일정과 함께 하며 각 팀의 대장을 돕니다.

*주미철 여대협 선봉대 : 전남, 전북, 충남, 수원, 용성, 인천, 서울(동지, 서지)

*통일협상 선봉대: 부울, 경남, 대경, 대전, 충북, 서울(복지, 남지)

통선대 활동 일정

	3일밤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주미철 선봉대	대전집결	대전 결단식	제주도	광주	군산	전주	대전
통일협상선봉대	대전집결	대전 결단식	제주도	부산	대구	안동	대전

	10일	11일	12일	13일	15일
주미철 선봉대	천안	수원평택	인천	서울	해단식
통일협상선봉대	청주	원주	춘천	서울	해단식

4일밤: 전체 교양

5일: 4.3대규모 집회 참가

지역 통선대 활동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여대협에서 지역 통선대 조직화 방도는 나오지 못한 수준입니다. 작년 부울 여대협에서 수행한 지역 통선대의 활동을 그 모범과 정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민통여단을 구성했던 것처럼 성과가 있는 반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내용의 마련과 조직화 방도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성과를 살리는 방도로써 지역 통선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올해의 '전여대협 선봉대'와의 결합방도를 내오는 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또한 각 지역 특수성에 맞는 내용 마련의 고민 속에서 지역 통선대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수원지역에서는 '기지촌 활동'의 경험을 외화시켜내봐도 좋을 것이며, 충청 지역에서는 임수경 학우 구출 투쟁이나,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반대투쟁의 어머니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통선대 조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통일이야

모 건바람에 - 외로이 돌아놓는 꽃 가녀
야 위어만가는 - 갈라진 이산하위 세 독수

니그무것 마다에 사무 치는 한이 여
리반통은

꽃 히고 피 - 눈물 흘려 이제
는 되값야할때 이제 는 하나될때 잔련

그 상서위에 건달래꽃은 두고 일 어 나리 라

모 건바람에 또-다-시 일-어-나는 꽃 오-

오- 통일이야 - 우리들의 사랑이야 -

IV. 일정 및 계획

준비 여대협 조동 사업의 계획은 미리 기계적으로 딱 잡아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 자신부터 통일 투쟁의 주체로 나서면서 학우들의 변화와 함께할 때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제출되어 질 것입니다.

'준비모임'에서는 계속적인 간부들부터 변화하여 학우들이 하나가 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선은 그러한 과정에서 흐름을 잡고 의식화, 조직화 할 수 있는 대강의 일정과 계획을 내놓습니다.

날짜	주목표	정치일정	여대협 일정	계획	통선대	정대협	비고
7/9			대표자회의	1차 제안서			
10	1차 제안해설기 기초 홍보						
16			실무회의				
20			대표자전진대회	2차 제안서		보은진관항소 2차 심리	
24	기층까지해설기				중대장회의		
27	집중 홍보기 조직화 기간				학교대장회의		
8/1				3차 제안서			
4	집중외화기 (지역투쟁중심)				통선대결단식	수요시위	
5						5,12일 중 여대협결합 가능	
8					순례		
10	총력준비검토키					아시아여성 연대회의 수요시위	
12	범민족대회 (서울 집중)						

앞으로의 계획에는 지역의 사업 계획이 더욱 풍부하게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각 지역에서의 여학생 일꾼들의 치열한 고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 1차 제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제안서가 여학생 일꾼에게 힘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마무리 지으면서 드는 생각은 혹 실망

갑과 패배감을 주지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보다는 기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투쟁의 반성 속에서 '여학운의 실정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새벽별이 뜨면 푸른 강이 보인다.'는 책이었던가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고 좌절해 버리는 수가 종종 있다고. 그러면서 '능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은 재주와 재능입니다. 능력이라고 했을때는 '신념과 의리' '재주와 재능'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변화 발전시키는 것에는 신념과 의리가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학생 일꾼들은 재주와 재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신념과 의리가 더욱 더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정해 주지도 않는 여학운을 하면서 여학운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조통 투쟁을 이러한 신념과 의리로써 한층 위력한 투쟁으로 만들어 냅시다.

승리의 믿음으로 건강하게 투쟁하십시오. 

5